



랍뭉!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 모롭 부족 성탄절

“랍뭉, 예쭈쓰 때롱애!(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대 광야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파푸아 섬의 모롭 부족에까지 전해지는데 2000여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대교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 생각치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롭 부족에서도 구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모롭 부족 처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극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성경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도록 대본을 짜고, 2주 정도 매일 모여서 대사를 연습하고 무대와 의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연극이었지만 아이들이 연극을 훌륭하게 공연하였습니다. 연극을 관람한 어른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분명히 알겠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성탄절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를 번역하여 예배 중 불렀는데 10번 이상 부를 정도로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예배 중에 엘리우스와 레피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성탄절 다음날에는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믿지 않는 친지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돌을 불에 달구어 깔고 닭과 고구마, 고사리, 사구 녹말 등을 바나나 잎으로 덮어서 찌내는 요리를 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부족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불신자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이 먹고, 집에 싸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나 섬김과는 거리가 먼 육신적인 잔치가 되었습니다. 섬김에 대하여 아직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모롭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로마서 성경공부

모롭 교회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번역하고 교재를 만들고 주일에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8장을 번역하고 있는데 로마서 성경공부를 통해 인간의 죄, 율법과 은혜의 구원과 성도의 삶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교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의 많은 언어들이 함축적이고 생소해서 부족어로 잘 번역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번역을 도와줄 부족 언어 조력자들이 성경 번역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보루네오섬 스카다오 부족 안수식

지난 1월에 저희가 파푸아에 오기 전 7년간 사역했던 보루네오섬, 스카다오 부족 교회 사역자 안수식을 다녀왔습니다. 총 5번의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너무 싫지만 어쩔수 없이 매번 코에 면봉을 넣어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총 8번 비행기를 탔고 24시간의 버스와 오토바이로 육상 이동을 해야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역 규정상 비행기를 탈 때 3일 마다 테스트를 해야만 했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일정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었지만 모든 일정을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 2명의 목회자(케오니, 뽁끄리스만)와 3명의 집사를 안수하였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 함께 전도처에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위해 동행했던 형제들이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저희 옆집에서 조용하지만 항상 신실하게 자리를 지켰던 벨렐 형제와 다른 성도들을 교회의 집사로 세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목회자 후보였던 뽁이빠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여 안타깝지만 안수식에서 탈락하였습니다. 10여년 섬겨오던 교회와 주님의 일을 돈 욕심 때문에 잃고 악한 말로 교회를 훼방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카다오 교회는 이전에 함께 했던 노인 성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가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역자인 폴과 벨라 선교사는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 중에 있는데 3년 후에 신약성경을 봉헌하고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 동역자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과 삶을 나누면서 다시 주님안에서 교제하는 즐거움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카다오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가족 소식

모릅 부족사역의 동역자인 윤태경 선교사 가정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다시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캐나다의 선교훈련소에서 강의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선교지를 떠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요한이는 해병대 수색대에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을 선교지에서 살았기에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이 약했지만 군생활을 통해 한국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은이는 방학으로 인해 3명의 친구 집에서 지냈었습니다. 2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 후에 미각과 후각이 마비되고 격리되었다가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저희 가족과 모릅, 스카다오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7일  
파푸아에서

이지성, 김혜진 선교사올림

주소 : YMMP, Box 369, Sentani, Papua, Indonesia 99357  
전화 : 62-822-3824-1777  
Email: jiseoung\_lee@global.partners  
선교후원: 국민은행 473-21-0585-557